

사회

“통일 앞당겨 흠어진 가족 빨리 만났으면...”

‘김정일 사망’ 이산가족·새터민 반응

“체제 유지하려 폭압정치 할까 걱정”

19일 김정일 사망소식이 전해지면 서 북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이나 실향민, 새터민 등은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이들은 김정일 사망이 냉랭해진 남북관계 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앞당기길 바랐다.

김정일 사망소식이 전해지면 서 북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이나 실향민, 새터민 등은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이들은 김정일 사망이 냉랭해진 남북관계 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앞당기길 바랐다.

53) 남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팔십 평생 한반도 본적이 없었지만 한 눈에 13년 전에 돌아가셨던 형님의 얼굴을 조카들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할아버지는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와 틀날 때마다 조카들이 손에 쥐어준 가족사진을 꺼내보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지난 1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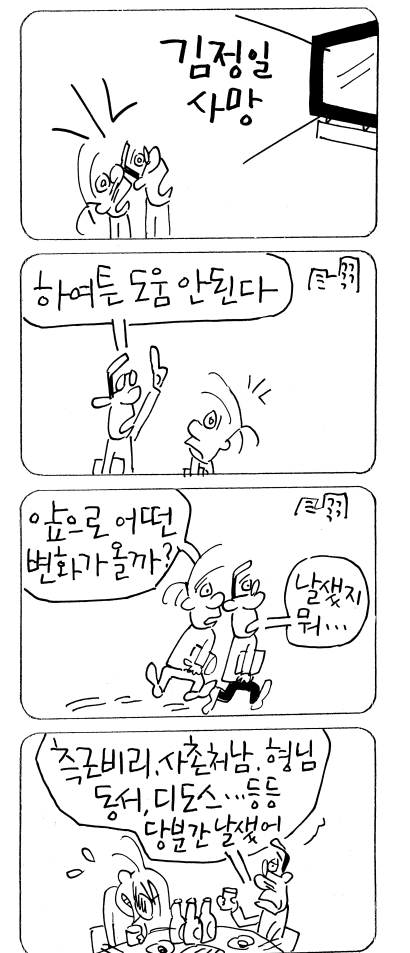
일이 늦던 빠르던 조카들이 다치지나 않았으면 허네.” 지난해 김 할아버지와 함께 북에 있는 여동생들을 만나고 온 최명순(86·광주시 동구 계림동) 할아버지가 이날은 고향 생각이 더 간절했다.



지난해 북에 있는 두 조카를 만나고 온 김해룡 할아버지.

를 틈 새터민들도 급작스런 김정일 사망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5년 전 북한을 탈출한 이모씨는 지난 1994년 7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김일성이 죽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것처럼

니원침 (8463) 김정일 사망



시민들 ‘김정일 사망’ 뉴스 촉각 해 북한 관련 긴급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19일 오후 광주 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북한 관련 긴급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장휘국교육감 “특채비리 유감” 표명 원론적 입장... 의혹 해소 미흡

광주시교육청의 공립교원 특채 비리와 관련, 책임있는 해명요구에도 목록부담으로 일관했던 장휘국 교육감이 처음 입장을 밝혔으나 원론적인 하다는 지적이다. 장 교육감은 19일 ‘합격자 바뀌지 않겠다’ 사립교사 공립특채와 관련,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 답답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이 시교육청의 교사 특채 비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교과부 감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런(특채비리) 내용이 알려져 당혹스럽다”며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 5명을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일부 탈락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교과부 감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SK 최태원 회장 소환 행인 치고 달아난 여수시공무원 덜미

여수경찰은 19일 자동차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여수시청 직원 김모(44)씨를 검거,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경 여수시 만항동 도로를 건너던 김모(48)씨

를 승용차로 치어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리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길에 버려둔 차량에 대한 경찰의 조희로 덜미를 잡혔다.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9일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SK 계열사 자금을 돈세탁을 거쳐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에 전용하는 과정에 개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형 두려워 거짓말했다” 해경 살해 中 선장 범행 자백

불법조업 중 우리 해양경찰에 나포 당하자 고(故) 이청호 경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선장 청모(42)씨는 “사형 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은 19일 오후 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씨가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사형 당할까봐 겁이 나 거짓말을 했지만 대한민국 해경이 조사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대대했고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 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Includes Naver search and product images.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Includes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100% 국내산 참돔나무 진액 참돔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돔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Includes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